

세계 태권도 선수들 한자리에

무주태권도원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 성료… 세계 14개국 선수 184명 참가

무주태권도원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주관하고, 무주군이 후원한 대회에는 프랑스와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2백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은 팔각형 참조 형태의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로 선수들은 11일 복식전을 시작으로, 12일에는 G4등급의 혼성 단체전, 13일 개인전 경기를 펼쳐며 기량을 뽐냈다.

관객객들은 “그동안 보고 상상하던 태권도대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며 “벽을 차고 날아오르는 모습이나 선수들끼리 자유롭게 교대하며 경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박진감 넘쳤다”라고 전했다.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 게임은 2020년대에 새롭게 도입된 경기장과 독특한 경기방식으로 태권도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국제대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무주군은 대회의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대회 예산확보 및 홍보, 안전관리 등 실질적 지원에 힘써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글로벌 태권시대를 지향하며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태권도 마케팅에 힘쓰고



무주태권도원 2025 세계 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됐다.

보, 안전관리 등 실질적 지원에 힘써왔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글로벌 태권시대를 지향하며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태권도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라며 “태권도 경기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세계태권도 다이아몬드게임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기후변화 대응’ 업체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 하우스 고온 경감 시설 설치로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

진안군이 여름철 고온기 상추재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 고랭지 비가림 업체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 상추재배 농업인 2개 단체, 10여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1ha 규모에서 진행된다.

군은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고랭지 지역 상추 재배 하우스에 고온 경감 종합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고온 경감 종합기술’은 재배 하우스에 환풍기, 차광막, 포그냉방 시설 등을 설치하고 고온에 강한 업체류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다. 특히 차열망을

설치할 경우 상추 생육에 치명적인 고온기인 7~8월에 평균온도를 3.1℃, 최고온도를 4.9℃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온기 업체류의 재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준고랭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소득작목을 발굴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만1,334건,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

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군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11일 진안을 군하리 364번지 일원에서 ‘진안고원 행복주택’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착수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대

진안고원 행복주택’ 기공식 갖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착수

진안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진안을 군하리 364번지 일원에서 ‘진안고원 행복주택’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이장단체, 지역 청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은 진안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추진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은 대지면적 2,115㎡부지에 지상 4층, 2개 동 규모로 건립되며, 신혼부부용 주택(전용 53.22㎡) 15세대, 청년용 주택(전용

37.30㎡) 15세대 총 30세대로 구성된다.

그동안 진안군은 실무 협의와 LH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부지 선정과 설계 준비 등 제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으며 오는 8월 착공해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고원 행복주택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젊은 세대가 진안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지속 가능한 진안의 미래를 여는 다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보 취약계층 독서 환경 개선된다

무주군,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 선정

무주군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독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독서 환경 개선과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되는 것으로, 무주군은 사업 선정으로 △독서확대기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청각 장애인용 위한 (공공이용)보청기기 등 총 3종의 독서 보조기기를 지원받게 됐다.

해당 보조기기들은 7월 중 무주형성지공도서관 자료실 내 ‘장애인 전용 코너’에 설치될 예정으로 장애인 이용자들의 도서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독서 보조기기’의 설치로 장애인 유형별로 독서 접근성이 향상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문해력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보조기 활용과 연계해 독서 습관 형성, 자기 계발, 문화 참여 확대 등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도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고원물 7월 화·수요일
전품목 20% 할인행사진행

진안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진안고원물’에서 여름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품목 2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진안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진안고원물에 입점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이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진안군은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진안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남수 농특산유통과장은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계북면, 토마토랑 수박축제 앞두고 농사 지원

장수군 계북면 직원들이 여름철 대표 축제인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를 앞두고 수박과 토마토 재배에 직접 나서며 일손 보태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계북면은 축제에 사용될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직원들이 비닐하우스 재배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계북면은 참샘골체육관 인근 하우스에서 수박과 토마토 모종 심기를 시작으로, 수박당굴 유인 작업과 물주기 등 농사 전 과정에 일손을 보태고 있으며, 축제를 앞두고 농산물 수확까지 함께 할 계획이다.

한편, ‘제3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계북초등학교 및 참샘골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수박 빨리먹기 대회, 토마토 체험부스, 직거래 장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름 무더위를 날릴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